

# 계엄군 집단 광기 성폭행... 피해자들 “지금도 군복만 보면 울렁”

정부 공동조사단 5·18 계엄군 성폭력 발표 내용 보니

### 조현병 시달리고 정신병원 입원에 분신자살까지 파탄난 삼 여성 피해 17건 공식 확인...5·18 조사위 조속히 꾸려져야

1980년 5월 19일 오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당시 17세)양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오후를 맞고 조산대학교 앞으로 갔다. A양은 계엄군에 붙잡힌 뒤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차가 멈추고 총기와 대검으로 무장한 군인 2명은 A양을 붙들고 외진 숲 속으로 향했다. A양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군인들은 대학가 부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A양을 시위대 연락책으로 단정했다.

이후 무차별 구타가 이어졌고, 그녀가 쓰러지자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했다. 그리고 A양을 광주 외곽 지역에 버린 뒤 사라졌다.

A양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5·18의 상처를 극복하는 듯 했지만 대학교 3학년이던 1983년 여름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생겼다. 1985년 7월에는 전남의 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끝내 이룰 수 없었던 A양은 1986년 12월 3일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재소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이 지난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자·목격자의

증언으로 전해지던 계엄군의 민간인 여성 성폭력 17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조사단은 2차 피해에 따른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1995년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대부분 포함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2000년 발행한 5·18증언집 '부서진 풍경'에는 다수의 여성 인권 유린 사례가 수록돼 있다.

1980년 고교 1학년이 된 B(당시 18세)양은 고향인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했다. B양은 그해 5월 19일 오후 2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북구 유동삼거리까지 걸어간 중 도주하는 시위대 사이에 섞이게 된다. B양은 인근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만, 곧 군인들에게 붙잡혔다.

군인들은 B양의 치마를 걷어올려 머리까지 뒤집어 씌운 뒤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백운동 인근 야산으로 끌고갔고, 성폭행이 이어졌다. 이후 B양에게는 조현병이 찾아왔다. 한때 병을 극복하고 비구니가 되기도 했지만, 환속해 가정을 꾸리면서 병이 재발해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당시 22세)씨의 사례는 본인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성폭행 피해 정황이 의

심되는 케이스다.

C씨는 1980년 5월26일 오후 산수동 인근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폭행당했다고 한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풀려난 C씨는 이후 A·B양처럼 조현병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C씨는 “더러워진 몸을 씻어야 한다”며 자신의 몸을 수시로 씻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증세를 보여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공동조사단의 실사에서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위협당한 뒤 2명 이상 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까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기와 증언으로 미뤄 성폭행을 자행한 군인들은 5월 당시 광주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 부대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성폭행당한 정신적인 상처가 더 크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성폭행도 충격이지만, 칼이나 총으로 인한 여성 사망자들 중 유방·성기 훼손사례도 확인돼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

광주지검의 검사 조서를 살펴보면 1980년 5월19일 집을 나간 후 같은달 28일 상무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손모(여·당시 20세)씨는 왼쪽 가슴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골반, 허벅지에서는 다수의 총상이 있었다.

오월민주여성회에 따르면 5·18 당시 다 치거나 숨진 여성 피해자는 258명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유공자 4215명(사망·행불자 제외) 중 여성은 212명



505보안부대 엠티 활용 어떻게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앞에서 '505보안부대 엠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05보안부대 엠티 활용 어떻게

(5.02%)이다.

오월민주여성회 관계자는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군인들의 ‘집단 광기’가 광주에서 작동했다는 점에 치가 떨린다”면서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하루속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해자 처벌과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폭행 논란 위디스크 회장 ‘엽기 워크숍’

석궁·일본도로 닭 잡게 하는 영상 등 추가 공개

엽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前) 직원을 폭행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 31일 양 회장이 2년 전 강원 홍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의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석궁을 들고 살아 있는 닭을 찔렀으며, 직원에게도 석궁을 주고 닭을 잡게 했다. 직원이 석궁 다루기를 어려워하면 “XX야, 장난해” 등의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또 직원 몇몇에게는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베도록 시키기도 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런 엽기적인 워크숍은 여러 번 진행됐다. 이 밖에 중년 남성 직원들에게 머리를 초록색, 빨간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고 술자리에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으며 술을 뿜을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뉴스타파를 통해 “워크숍에서 상추를 빨리 찢지 못해(직원들) 퇴사시킨 경우도 있었고, 개조한 BB탄 총을 직원들에게 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이날 한국미래기술, 위디스크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기간제 교사 영장 신청

성적 조작·성관계 영상 촬영도 진도에선 “교사가 성추행” 신고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며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성적을 조작해줬고,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A씨는 “서로 좋아해 성관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됐다. 입건 혐의에는 포함된 만큼 향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도경찰 등에 따르면 진도군 한 고등학교에서 파견 교사 C씨가 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학생 대표 면담 등을 통해 C씨의 성추행 의혹을 파악하고 성 고충 처리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들과 C씨를 조사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전남도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피해 학생들은 C씨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등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학생 7명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 “왜 급등했나”...광주 아파트 13곳 투기 조사

경찰, 투기세력 불법 입증 주력 분양자료 넘겨 받아 분석 작업

경찰이 광주 남구 봉선동 등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불법 거래 등 투기세력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광주시로부터 광주 아파트 13곳의 분양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며, 투기주정 세력의 불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단체에 접수된 실거래 신고자료 등과 분양사무소의 분양권 거래 명단 등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아파트는 남구 6곳, 동구 4곳, 광산구 2곳, 북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광주시는 최근 분양했거나 입주한 아파트 중 웃돈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거래가 많은 곳을 자료제공 대상 아파트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자료는 최초분양자, 실거래 신고자료 등이 포함된 기초자료이며,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분석 중이다.

경찰은 특히 제공된 자료 중 전매가 제한되는 아파트의 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앞서 지난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를 두고 복수의 사건과 관련한 여러 명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세부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시·경찰·국세청 등은 지난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